

# “미래 에너지 체험해 보자”…부스마다 관람객 줄이어

10주년 맞은 국내 최대 에너지박람회 'BIXPO(빅스포) 2025' 가보니

발전 3사·효성중공업·포스코·LS일렉트릭 등 신기술 선보여  
에너지밸리 일자리박람회도 함께 열려 2030 취준생들 몰려

5일 오전 9시께 찾은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국내 최대 에너지 박람회인 'BIXPO(빅스포) 2025'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센터 일대는 관람객을 태운 버스와 개인 차량 등으로 교통이 혼잡했고, 행사 개막식이 2시간여 남은 시간인데도 단체 관람객들이 무리 지어 센터로 들어섰다.

서울·부산·대전 등 타지 방문객부터 국내외 에너지업계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 에너지 분야 취업을 꿈꾸는 학생 등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10주년을 맞은 빅스포를 찾았다.

센터 내부는 관람객 출입 비표를 받기 위한 관람객의 줄이 길게 늘어섰고, 벽면 곳곳에는 한전과 발전 회사, 참여 기관·기업의 홍보 문구가 가득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시작된 개막식에는 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과 기조연설을 맡은 김용전 세계은행 총재, 우원식 국회의원 등 정치·산업·금융 분야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관계자들까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에너지 전환은 기업 또는 기관이 독립적인 힘으로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글로벌 자본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업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 김동철 한전 사장은 개회를 알리며 “에너지는 기술혁신의 출발점이자 새로운 산업의 촉매로 연결 축이 됐다. 이번 빅스포가 사람과 지역을, 산업과 기업을 연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빅스포 2025의 주제인 ‘에너지로 연결하다’를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어진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산업구조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곡점 앞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축”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고도화,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전력생산은 우리 경제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개막식 후 본격적인 박람회 관람이 시작되자 메



5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BIXPO 2025' 한전 KPS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이 VR을 활용한 핵연료 교체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인 전시홀로 관람 인파들이 몰렸다.

전시홀에는 한전과 한전KPS, 한전KDN 등 발전 3사를 비롯해 효성중공업과 포스코, LS일렉트릭 등 굵직한 기업들이 모두 부스를 차리고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각각의 부스에서는 ESS배터리, 태양전지, 고강도 송전선 등 기업별로 자랑하는 에너지 혁신 기술들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일부 기관·기업들은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전KDN 부

스 앞에 마련된 ‘정전시 비상 대처상황 체험공간’에는 관람객들이 터치스크린을 손으로 눌러가며 정전시 전력 기관의 대응 과정을 살펴보고 있었다.

한전KPS는 VR(가상현실)을 활용해 1년 6개월마다 진행되는 핵연료 교체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관람객의 발길을 머물게 했다.

전시홀 한편에는 ‘지역특화산업관’이 마련돼 각 지자체가 지역 소재 대학·기업 등과 함께 추진 중인 에너지 정책을 홍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광주시 부스는 ‘AI에너지 선도조시 조성’을 위한 수소에너지 산업기반 마련 등 과정을 설명하고, (주)매그나텍, 무진 테크놀로지, LEECELL 등 지역 소재 이차전지·태양전지 등을 다루는 기업들을 소개했다.

전남도 부스는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수도’를 표방하며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및 비전 등을 안내했다.

빅스포와 함께 열린 ‘2025 에너지밸리 일자리박람회’에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파가 쏠렸다.

일자리박람회는 기업관 16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7개, 유관기관 10개, 부대행사관 3개, 취업컨설팅관 2개, 지원관 등으로 구성됐다. 박람회에는 지역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이 평소 취업을 희망해 왔던 한전 등 에너지 업계 기업 부스를 방문해 취업 컨설팅을 받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수도권 베이비부머 10명 중 7명 “일자리 있으면 귀촌 가능”

희망지역 충청-강원-호남-영남 순  
귀촌 꺼리는 이유 생활인프라 부족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 800여만명) 10명 중 7명은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 기회가 있으면 귀촌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수도권 베이비부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을 경우 귀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남성은 귀촌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79.9%로 여성(66.9%)보다 높았다. 응답자들은 귀촌을 희망하는 이유로 건강한 생활 유지(24.6%), 여유로운 생활·휴식(22.9%), 자연 친화적 환경(20.7%), 주거비·생활비 절감(15.6%) 등을 꼽았다.

귀촌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의료·교육·문화 등 생활 인프라 부족(27.8%), 도시 생활에 대한 익숙함(17.0%), 교통 및 접근성 불편(15.2%) 등이 지목됐다.

귀촌 희망 지역은 충청권이 32.9%로 가장 인기 있었다. 이어 강원권(27.4%), 호남권(15.9%), 영남권(10.4%) 등이었다. 선호 직무는 관리·사무직(30.7%), 서비스·판매직(20.7%), 농림·어업

(15.9%), 생산·제조직(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최소 월 임금 수준은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32.6%),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30.7%),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6.8%) 등의 순이었고 평균은 227만원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 집중 현상과 내수 위축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은퇴를 앞둔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의 고향을 중심으로 한 귀촌과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 5년간 17.7% 증가 그쳐

7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아

광주 소재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소매점 판매액이 최근 5년간 17.7%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는 대형소매점 판매액과 증가폭이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았는데, 이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다진 경기침체 회복세가 타 지역 대비 느렸던 만큼 소비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광주 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8893억원으로 2020년(1조 6054억원) 대비 17.7% 증가했다.

판매액과 판매액 증가폭은 7개 특·광역시 중 울산(1조 6835억원·10.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지역소비가 빠르게 회복된 대전(44.5%), 서울(38.5%) 등과는 증가폭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지난해 광주 대형소매점 업체별 판매액 비중은 백화점이 56.3%, 대형마트는 43.7%를 차지했다.

최근 5년 간 광주 백화점 판매액은 8392억원에서 1조 629억원으로 26.7% 늘었고, 대형마트 판매액은 지난해 기준 8264억원으로 2020년(7662억원)에 걸쳐 7.9% 증가하는데 그쳤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대신증권 “금호타이어, 3분기 저점 이익 개선”

목표 주가 6500원으로 올려

대신증권은 5일 금호타이어에 대해 “그동안 시장 관점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었으나 3분기를 저점으로 이익체력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김귀연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금호타이어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914억원)나 대신증권 추정치(711억원) 대비 호실적을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금호타이어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0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1조1137억원으로 0.1%, 순이익은 915억원으로 0.7% 줄었다.

김 연구원은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차질에도

고인치 타이어 비중 확대, 미국 중심 판가 인상 효과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했다”며 “미국 관세 영향도 360억원이 반영됐으나 판가 인상으로 50%가량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3분기 미국의 본격적인 가격 인상 전 수요 효과를 감안하면 4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수요 효과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또 “우호적 환율, 광주공장 가동률 개선, 원재료비 하락 효과 지속, 믹스(구성)/판가 인상 통한 관세 상쇄를 확대에 따라 3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인 개선세를 전망한다”면서 “올해는 연초 대비 주가수익률이 -4.2%로 시장의 관점에서 철저히 소외됐으나 개선된 이익체력을 감안하면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6500원으로 올렸다.

/장윤영 기자 zzang@

## 증권가 “코스피 폭락, 추세적 하락장 아니다”

“이익 전망·정책 모멘텀 양호”

인공지능(AI) 거품 논란으로 불거진 미국 기술주 섹터에 코스피가 한때 3900선까지 주저앉으면서 향후 국내 주가 방향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5일 일단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면서도 중장기적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는 이날 내놓은 ‘국내 긴급 시황: 시장 하락 배경 점검과 전망’ 보고서에서 “5일 국내 증시는 장중 5%대 하락세를 보였다”며 “지난밤(4일)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증권은 증시 조정 배경에 대해 “AI 관련 기술주들이 최근 증시 강세를 견인했으나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업의 막대한 AI 투자 규모 대비 수익화가 언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최고경영자(CEO)들이 AI 주가 고평가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술주 위도의 매도세가 촉발됐다”고 강조했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는 ‘왜 떨어지나? 뭐가 떨어지나?’ 보고서에서 ▲장기 상승 후 조정 가능성 재개 ▲밸런타이어 발 밸류에이션(가치평가) 부담 ▲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 CEO의 조정 가능 시사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봤다.

신한투자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미국발 AI 버블 우려를 반영하며 대형주에서 일제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했다”고 주장했다.

주식 전문가들은 다만 국내 증시가 추세적인 하락장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

/연합뉴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 코스피         | 4004.42 (-117.32)                  |
| ↓ 코스닥         | 901.89 (-24.68)                    |
| ↑ 금리 (국고채 3년) | 2.767 (+0.038)                     |
| ↑ 환율 (US D)   | 1448.65 (+10.75)<br>〈오후 4시 28분 기준〉 |



광주신세계 캠핑의 계절 맞아 다양한 랜턴 선보여  
광주신세계 ‘루메나’ 매장에서 직원이 다양한 랜턴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가 ‘캠핑의 계절’ 가을을 맞아 다양한 랜턴을 제공한다. 우선 광주신세계 플레이스팿에 있는 ‘DOD’ 매장에서는 ‘키노코 미니 랜턴’ 등 캠핑 공간 포인트 용도로 활용되는 조명을 내놔다. 본관 8층 루메나 매장은 한가지 제품으로 3가지 라이트 모드 연출이 가능한 ‘LED 캠핑랜턴 M4 멀티볼’을, ‘발무다’는 대표상품 ‘발무다 더 랜턴’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블랙핑크 최애 ‘라부부’ 짝통 키링서 기준치 300배 넘는 유해물질

해외직구 250개 제품 발암물질

블랙핑크 리사와 제니 등이 가방에 달고 나와선 풍성한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키링의 짝통 제품에서 기준치의 3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해외 직구로 유통되는 가짜제품에 다량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 상반기 국내로 반입된 ‘짝통’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단속 결과 총 60만6443점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피부에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카드뮴·가스제 등 국제암연구소 지정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일부 제품에선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

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번 검사 대상에는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직접 구매한 제품도 포함됐다. 이 경로로 구입한 42점의 짝통 장신구를 분석한 결과, 24점(57.1%)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 중 납은 최대 41.64%(기준치의 4627배), 카드뮴은 최대 12.0%(기준치의 120배) 검출됐다.

최근 국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키링 5점도 구매해 분석한 결과,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이르는 발암물질 가소제가 검출됐다.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해외 할인행사를 앞두고 연말까지 8주간 이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

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전국 34개 세관이 참여하며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수입을 집중 점검한다.

관세청은 특히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간소한 절차로 통관되고 관세·부가세도 면제되는데, 이를 악용한 판매용 수입과 타인의 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 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800억원으로, 전년 동기(608억원)대비 32%나 증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